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통한 건전한 방송장비산업 생태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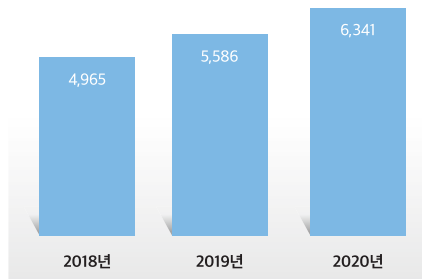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방송장비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1년 4월 29일에 행정 예고하였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3억 원 이상 방송장비 사업에 대해 방송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특정규격 등에 따른 불공정 입찰을 방지하며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수요처의 효율적 방송장비 구축 지원 등의 주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최근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공기관 내 방송장비 전문가 부재로 과도한 규격의 방송장비를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공정경쟁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 방송장비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위임근거 명확화와 지침 적용 기준금액 현실화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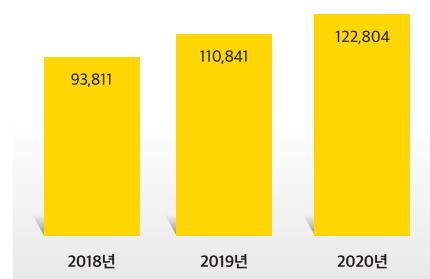
공공 방송장비시장 계약규모

(단위 : 억원)



공공 방송장비시장 계약건수

(단위 : 건)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특정품목 조달 내역, 방송장비 관련 총 93개 품목을 분석)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근거 명확화

위임근거를 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기본원칙) 및 제 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이 방송장비 구축·운영사업을 발주할 시 본 지침을 이행하도록 의무준수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적용범위 확대(방송장비 발주사업 3억 원 → 1억 원)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의 방송장비 발주사업에 대해 적용하였던 대상을 1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간 공공 방송장비 입찰에 있어 불공정 관행, 역차별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키 위해 마련하였다.

* 현 지침 적용대상인 3억 원 이상 계약은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4.9% 수준이며, 1억 원 이상으로 개정 시 총 706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5.4% 수준('20년 총액계약 기준)

방송장비 발주시 주요 불공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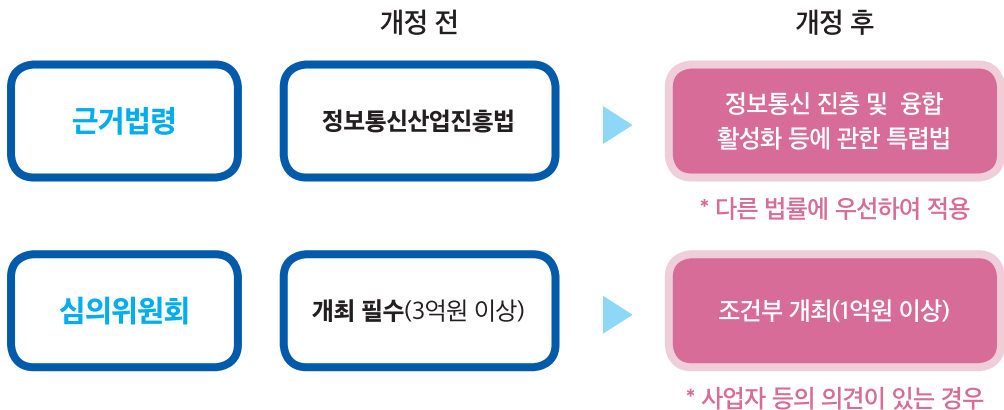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특정 제조사 및 물품 명시	특정 제조사명 또는 특정 제품명, 모델명을 표기하여 지정된 물품만이 입찰에 참여토록 표기
특정 규격·기술 명시	특정 제조회사의 물품 규격(음압, 입출력 채널 수, 크기, 무게 등)·기술(보안방식, 운영체제, 프로토콜, 소재 등)을 그대로 명시하여 규격 충족 물품에 유리하도록 표기
평가기준 오용	특정기업 및 물품에 유리한 배점, 해외인증 등 불필요한 자격사항에 대한 배점 등 사업예산 및 시스템 구성 대비 불합리한 배점 구조
불합리한 입찰방법	특정기업에 유리한 실적제한 및 자격요건 강화로 입찰자격 부여

예외조항 마련 등을 통한 지침 운영의 탄력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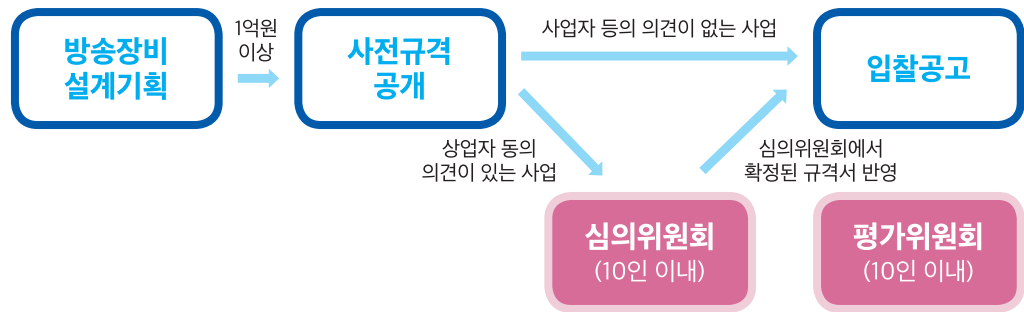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할 경우 규격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규격서 심의위원 추천에 대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방송장비산업센터)에 위탁하여 전문기관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완비하였다.

* 규격서 심의위원회는 제안요청서, 시방서 등에 대해 특정규격 명시 등 불공정 요소 및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

주요 개정 변경사항



지침 적용 프로세스



* 사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격서를 수정한 경우 심의위원회 생략 가능

2020년 공공기관 방송장비시장은 6,341억 원으로 연평균 13.0% 성장하며, 전체 방송장비시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을 통한 방송장비산업 선순환 구조 안착 시 민간시장까지 그 파급력이 전해져 산업 저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공공 방송장비 발주사업에 대한 불공정 해소,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등 방송장비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방송장비 시장의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 및 기술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동 지침을 운영·관리할 김병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방송장비산업센터장은 “방송장비 발주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침 운영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방송장비 구축·운영 무료 헬프데스크 컨설팅, 교육사업 등 후속사업 추진을 통해 수요처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 개정 관련 산업계 인터뷰

(방송장비 제조기업) 강규환 인터엠 본부장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활로 모색을 위해 많은 중소 방송장비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장비 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코자하는 과기정통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경쟁력있는 우리 중소 방송장비 업체들이 공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작점이 되어 공공시장의 문호가 낮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방송장비 수요처) 강상욱 국립국악원 주무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통해 방송장비 발주사업에 대한 기술적 검토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방송장비 현업 담당자가 투명행정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정경쟁이 활성화되어 우리 공공기관이

국산 장비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오명을 끊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방송장비 평가위원) 김영철 ICT폴리텍대학교 멀티미디어통신학과 교수

수 년간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사업과 관련하여 규격 심의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규격 등 불공정 입찰로 안타까운 적이 많았으나, 금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방송장비산업이 공정경쟁체제로 빠르게 안정화되어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특히 지침대상 하향조정, 관계법률 변경, 방송장비 전문기관(KOBEC)으로 위임근거 명확화 등 핵심이 되는 부분이 시의적절하게 개정되어 환영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후속지원 등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